

‘드디어’... 오늘 초중고 전학생 등교

중1·초5~6 2만명 학교로... 4차례 순차 등교 마무리 도교육청 방역에 심혈... 방역지원인력 714명 채용

지난달 20일 고3을 시작으로 진행된 순차 등교가 오늘(8일) 마무리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8일 4차 등교에 나서는 중1·초5~6학년 학생들의 수는 1만9792명(초등학교 1만2901명·중학교 6891명)이다. 이날 등교를 끝으로 4차례(▷5월 20일 고3 ▷5월 27일 고2·중3·초1~2·유치원·특수학교 ▷6월 3일 고1·중2·초3~4)에 걸친 순차 등교가

모두 마무리된다. 총 인원은 7만 8000여명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수 900명 이상(제주시 12개교, 서귀포시 3개교), 중학교 700명 이상(제주시 9개교), 고등학교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8개교) 등 ‘과대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격주 등교(고3·중3·초1~2 제외)가 시행된다. 또 과밀학급인 경우 교실 내 사물함

을 이용해 교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거나 일반교실보다 면적이 넓은 특별실 활용, 미러링·교차 수업을 포함한 학급내 분반 수업 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해 결정한다. 모든 학년의 등교 개학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발열감지기 등의 물품을 미리 확보했고, 현재는 예비비 17억원을 투입해 방역지원인력 714명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등·하교시 발열체크 ▷방역

용품관리 ▷일상소독 ▷보건실 운영 지원 ▷쉬는 시간 학생간 일정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급식소 이용 질서유지 ▷비밀 및 신체접촉 감염 예방활동 등이다. 한편 제주방송통신고등학교는 7일 등교수업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혼디거념팀 전문상담교사’를 투입, 학령기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위기학생 선별 ▷전문상담교사의 심리·정서상담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지속적 사례관리 등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팬생이모자반 제주 유입 정점 지났다... 도 “생태·유입시기 종합결과 점차 감소할 듯”

이달 4일까지 4762t 수거 정부에 수거선박 등 요청

제주연안에 팬생이모자반이 대량으로 밀려들면서 선박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팬생이모자반 수거 작업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13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팬생이모자반 수거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도는 회의를 통해 기관별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앙정부에 수거선박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해안에 유입되는 팬생이모자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성 예찰과 더불어 선박을 통한 해상 예찰, 연안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력에 의한 육상수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수거를 강화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해양환경공단에 수거 선박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선박 사고 우려와 도민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항포구, 해수욕장, 해녀조업구역, 유명

관광지 주변 해안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해양과 육상에서 총 4762t의 팬생이모자반을 수거했다. 해양에서는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선박 등 6척을 동원해 팬생이모자반 1352t을 수거했으며, 해안면에서는 청정제주바다지킴이와 읍면동 자생단체, 봉사단체 회원 등 2900여명과 굴삭기 등 장비 140대를 투입해 3410t을 수거했다. 수거된 팬생이모자반 중 4313t은 50여곳의 농가에 퇴비로 무상 제공했고, 100t은 화학비료제조업체에서 비료 첨가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위성관측 및 현장 조사 결과 동중국해 북부 및 서해 남부해역에 있는 팬생이모자반 군체가 남서풍 계열의 영향으로 북동진해 당분간 제주도로 유입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부유 모자반의 생리생태나 시기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최대 유입량이 정점을 찍어 앞으로는 유입량이 차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한라병원 ‘마취 평가’ 1등급

제주한라병원(병원장 김성수)이 환자 안전 관리·의료 질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마취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제주한라병원은 제1차 마취적정성 평가에서 총점 99점, 전체 평균 82.2점을 웃돌며 1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마취영역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전국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등 344개소에서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입원해 마취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강다해기자 dhkang@ihalla.com



“저희들 왔습니다”... 현충일날 충혼묘지 현충일인 지난 6일 제주시 충혼묘지를 찾은 많은 추모객들이 절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무더위에도 마스크 못 벗는 사람들 / 건설·택배·집배·급식노동자

“지금도 힘든데... 올 여름나기 벌써 걱정”

코로나19에 엄격 착용 노동자 보호대책 절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되면서 마스크를 쓴 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험겨운 여름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오후 1시쯤 찾은 제주시 화북동의 한 공사 현장에선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C였다. 건설노동자 김모(37)씨는 “온몸이 땀 범벅인데 마스크까지 끼고

일하러니 피부도 가렵고 호흡도 많이 가쁘다”며 “지금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앞으로 다가올 폭염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날이 더워지면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형 건설현장에선 정부의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 땀뭍 더위에 지침 준수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열사병 예방 3대 원칙인 물, 그늘, 휴식 제공을 현

장에서 제대로 지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일용직·계약직 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험하다. 일용직 노동자 현모(37)씨는 “일용직 노동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발각되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합들지만 꼭 참고 마스크를 착용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2만보 이상을 걸어야 하는 택배·집배 노동자들도 여름이 두렵긴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제주 집배노조에 따르면 집배원 1인당 하루 물량은 950여 건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배송이 늘었지만, 대면

으로 배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해서 한기까지 호소하는 집배노동자들이 늘었다. 집배노조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덜 더운 시간에 일하기 위해 출근시간을 앞당겨달라고 사측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과 습도가 공존하는 학교 급식실의 노동자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에어컨도 마음대로 켤 수 없어 조리사들은 매년 여름철마다 두통·현기증·구토·쓰러짐을 경험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급식실이 거리두기로 운영되면서 최대 6차 배식(6차례에 걸쳐 학년 별로 배식)이 진행되면서 업무 강도가 더 높아졌다. 조리사 A씨는 “얇지만, 고무장갑, 통풍도 안되는 위생복, 장화에 이어 이제 코와 입까지 막고 일해야 한다”고 힘들어했다. 강다해기자

세번째 SFTS 환자 발생 땀발 작업하던 70대 남성

제주지역에서 세 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5일 관내에 거주하는 A(72)씨가 SFTS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오한 증상으로 지역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4일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해 SFTS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 강아지 진드기 제거를 위해 살충제를 살포했고 땀발에서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구토·설사) 등이 나타나며 잠복기는 4~15일 정도로 사람

간의 전염력은 없지만 다발성 장기부전 및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무서운 감염병이다. SFTS는 현재까지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긴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풀밭 위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않는 것이 좋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옆집은 왜? 주택용 태양광을 달았을까요?

주택용 태양광이 없는 우리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

→

우리집 한달 전기요금

104,140원

→

30년이면

104,140원 × 12달 × 30년

= 37,490,400원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한 옆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

→

옆집 한달 전기요금

17,690원

→

30년이면

17,690원 × 12달 × 30년

= 6,368,400원

우리집과 옆집 30년 전기요금

31,122,000원 차이

그런데, 올해 태양광 보급사업에 신청해서 우리집에 설치하는데 드는 자부담금은

249만원

* 위 내용은 주택용태양광 3kW 설치, 월평균 발전량 300kWh, 보통 주택용(저압) 한전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전기사용 패턴, 전기요금 제도변경 및 태양광모듈 경년감소율에 따라 절감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추가”접수중! 보조금 251만4천원 지원! 도내 최장기간 10년 무상AS 제공!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